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28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전국 1위 주산지인데… “제주 메밀? 잘 몰라요” -6면	농산물원종장	뉴제주일보
○	“메밀 브랜드화 묘안 없나” -2면	농산물원종장	제민일보
○	제주, 메밀 면적·생산량 압도적 1위에도 인지도 낮아-10면	농산물원종장	제주매일
○	제주, 메밀 주산지인데… 인지도 낮다-3면	농산물원종장	제주일보
○	메밀 최대 주산지인데… 인지도 낮은 제주-6면	농산물원종장	한라일보
○	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아동지원금 전달-13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겨울 당근 풍작에 가격은 하락세-3면	-	제주일보
○	월동무 수확 계절 한파 주의해야-6면	-	제민일보
○	유채나물 수확 한창-1면	-	뉴제주일보
○	무밭에서 병충해 방제를…-1면	-	제주일보
○	겨울에도 분주한 농촌-6면	-	한라일보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전국 1위 주산지인데… “제주 메밀? 잘 몰라요” -6면

전국 1위 주산지인데…“제주 메밀? 잘 몰라요”

통합 브랜드 활용·콘테츠 개발 시급

제주가 전국 1위 메밀 주산지임에도 인지도가 낮아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 활용 및 제주메밀 활용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입도 관광객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 메밀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을 묻는 말에 '강원도‘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다. 제주는 28.0%에 그쳤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강원도의 다양한 메밀음식과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관련 축제 홍보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지역 메밀 재배 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 항목에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7.0%에 그쳐 제주 메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를 활용해 메밀꽃 및 축제 시기에 맞춘 관광상품과 메밀음식, 특산품 등을 개발해 홍보하면 소비자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산 메밀의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메밀 재배면적은 1665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 메밀 생산량은 1264t으로 전국 생산량의 63.8% 수준이다.

12.28.
뉴제주일보 6

현대성 기자

(제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 “메밀 브랜드화 묘안 없나” -2면

“메밀 브랜드화 묘안 없나”

○…전국 메밀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산지 제주가 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해 ‘제주메밀’ 브랜드화 방안이 절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입도관광객과 대도시 소비자들을 조사한 결과로, ‘메밀’ 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강원도(62.6%)가 가장 많고 제주는 28.0%에 불과.

주변에선 “이효석 소설에 힘입어 봉평메밀축제, 평창효석문화제 등 콘텐츠 힘이 컸지만 정작 도민들도 메밀 음식이나 특산품, 행사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마디.

12.28.
제민일보 2

(제주매일: 2023년 12월 28일)

○ 제주, 메밀 면적·생산량 압도적 1위에도 인지도 낮아-10면

제주메밀, 면적·생산량 압도적 1위에도 인지도 낮아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 "메밀하면 강원도 먼저 떠올라" 62.6% 응답
도농기원, 소비 확대·농가 소득 증대…통합브랜드 활성화 적극 나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산 메밀이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서는 강원도에 맥을 못추고 있어서 통합브랜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27일 지역특화작목 메밀의 통합브랜드 '제주메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업기술원이 입도 관광객과 서울 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메밀' 통합브랜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62.6%로 1위였으며, 제주는 고작 28.0%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다양한 메밀음식과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관련 축제 홍보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주지역 메밀 재배 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 37.0%, 모른다 63.0%로 제주 메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강원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메밀하면 연상되는 것은 음식(41.6%), 메밀꽃(38.1%), 축제(12.8%) 순으로 조사됐는데, 제주지역은 차별화된 새로운 음식이나 특산품이 적고, 관광과 연계한 메밀꽃 및 축제 시기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제주 메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도내 메밀 재배면적은 1665ha(전국의 2259ha의 73.7%), 생산량은 1264t(전국 1982t의 63.8%)로 전국 압도적 1위 주산지이지만 강원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제주 통합브랜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메밀 이미지가 개선되고 홍보 효과가 높아지면 소비자와 관광객의 신뢰도 향상,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산품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를 활용해 메밀꽃 및 축제 시기에 맞춘 관광상품과 메밀음식, 특산품 등을 개발해 홍보하면 소비자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태완 작물종자연구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메밀' 통합브랜드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산 메밀의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illegible]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2.28.
제주매일 10 [illegible]기자

(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제주, 메밀 주산지인데… 인지도 낮다-3면

제주, 메밀 주산지인데…인지도 낮다

〈전국 대비 재배면적 74%·생산량 64%〉 〈28%〉

강원이 먼저 떠오른다 63%…'제주메밀' 통합 브랜드 활성화 절실

농업기술원, 소비자 의견 조사

전국 최대 메밀 주산지는 제주이지만, 인지도가 낮아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지역특화작목 메밀의 통합 브랜드 '제주메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농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메밀 재배면적은 1665ha로 전국(2259ha)의 73.7%, 생산량도 1264t으로 전국(1982t)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는 전국 1위 메밀 주산지이지만, 강원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제주 통합 브랜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입도 관광객과 서울 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먼저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강원도가 62.6%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28.0%로 나타났다.

농기원은 강원도의 다양한 메밀음식과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관련 축제 홍보 등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지역 메밀 재배 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 37.0%, 모른다 63.0%로 제주메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게 조사됐다.

메밀 하면 연상되는 것은 음식 41.6%, 메밀꽃 38.1%, 축제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제주지역은 차별화된 새로운 음식이나 특산품이 적고, 관광과 연계한 메밀꽃 및 축제 시기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메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6%가 동의했다.

농기원 관계자는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를 활용해 메밀꽃 및 축제 시기에 맞춘 관광상품과 메밀음식, 특산품 등을 개발해 홍보하면 소비자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2.28.
제주일보 3 [illegible]기자

(한라일보: 2023년 12월 28일)

○ 메밀 최대 주산지인데… 인지도 낮은 제주-6면

메밀 최대 주산지인데… 인지도 낮은 제주

도내 메밀 재배면적 73.7%·생산량 63.8%로 전국 1위

메밀하면 강원도 가장 먼저 떠올려… 방안 마련 시급

제주지역이 전국 메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메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목 메밀의 통합브랜드 '제주메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메밀 재배면적은 1665ha로 전국(2259ha)의 73.7%에 달했다. 생산량은 1264t으로 전국(1982t)의 63.8%를 차지했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전국 1위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제주 통합브랜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밀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62.6%로 1위였으며, 제주는 28.0%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다양한 메밀음식과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관련 축제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주지역 메밀 재배 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 37.0%, '모른다' 63.0%로 나타나 제주 메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낮았다.

메밀하면 연상되는 것은 음식(41.6%), 메밀꽃(38.1%), 축제(12.8%) 순으로 조사됐는데, 제주지역은 차별화된 새로운 음식이나 특산품이 적고, 관광과 연계한 메밀꽃 및 축제 시기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제주 메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주메밀 이미지가 개선되고 홍보 효과가 높아지면 소비자와 관광객의 신뢰도 향상,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산품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를 활용해 메밀꽃 및 축제 시기에 맞춘 관광상품과 메밀음식, 특산품 등을 개발해 홍보하면 소비자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농업기술원은 판단하고 있다.

강태완 도농업기술원 작물종자연구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메밀' 통합 브랜드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산 메밀의 소비 확대 및 농가 …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12.28.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3년 12월 28일)

○ 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아동지원금 전달-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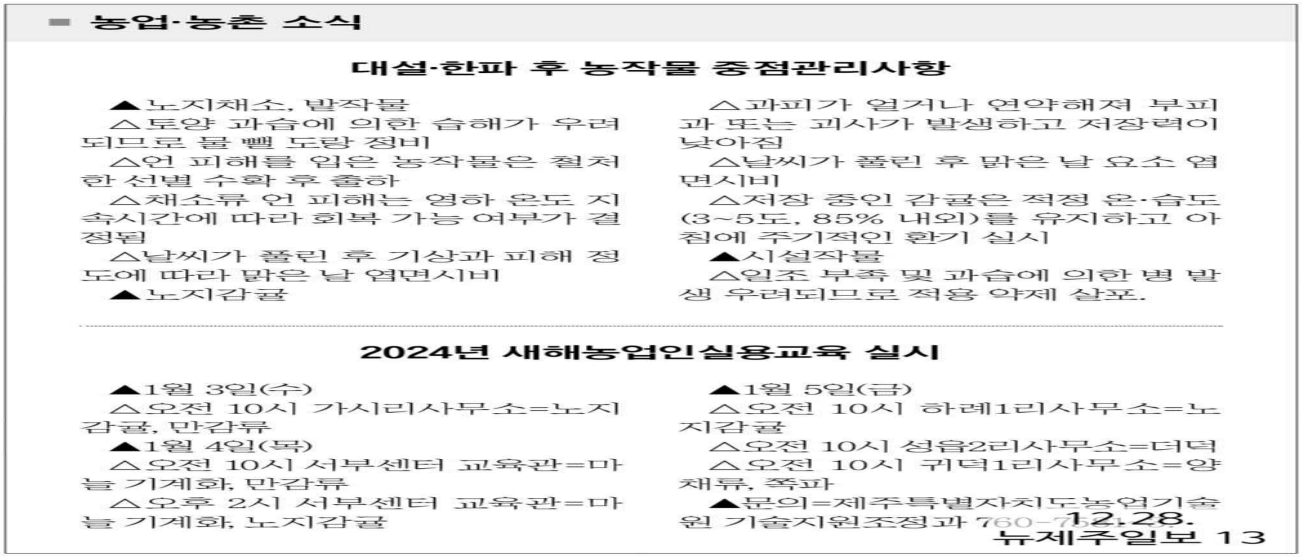
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아동지원금 전달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회장 정문경)는 22일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아동지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본부에 전달했다.

12.28.
제주매일 13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대설·한파 후 농작물 중점관리사항

▲노지채소, 밭작물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빼 도랑 정비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처한 선별 수확 후 출하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노지감귤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괴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도,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시설작물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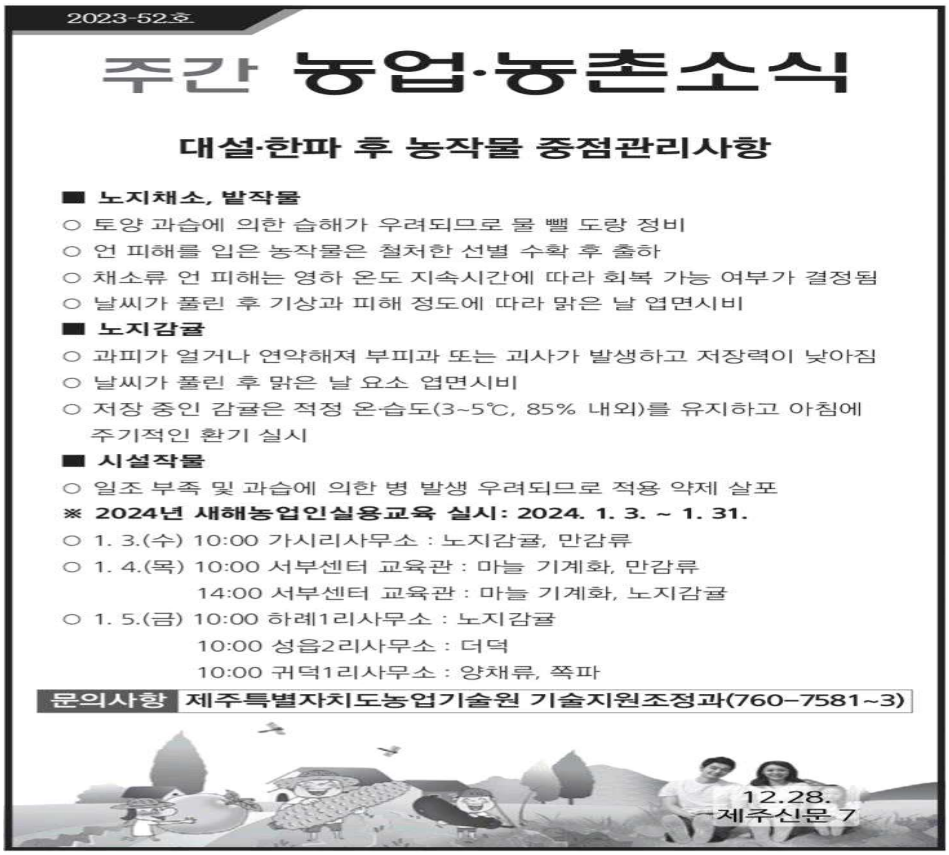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1월 3일(수)
△오전 10시 가시리사무소=노지감귤, 만감류
▲1월 4일(목)
△오전 10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만감류
△오후 2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1월 5일(금)
△오전 10시 하례1리사무소=노지감귤
△오전 10시 성읍2리사무소=더덕
△오전 10시 귀덕1리사무소=양채류, 쪽파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illegible]

12.28.
뉴제주일보 13

(제주신문: 2023년 12월 28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2023-52호

주간 농업·농촌소식

대설·한파 후 농작물 중점관리사항

■ **노지채소, 밭작물**
○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빼 도랑 정비
○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처한 선별 수확 후 출하
○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 **노지감귤**
○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괴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작물**
○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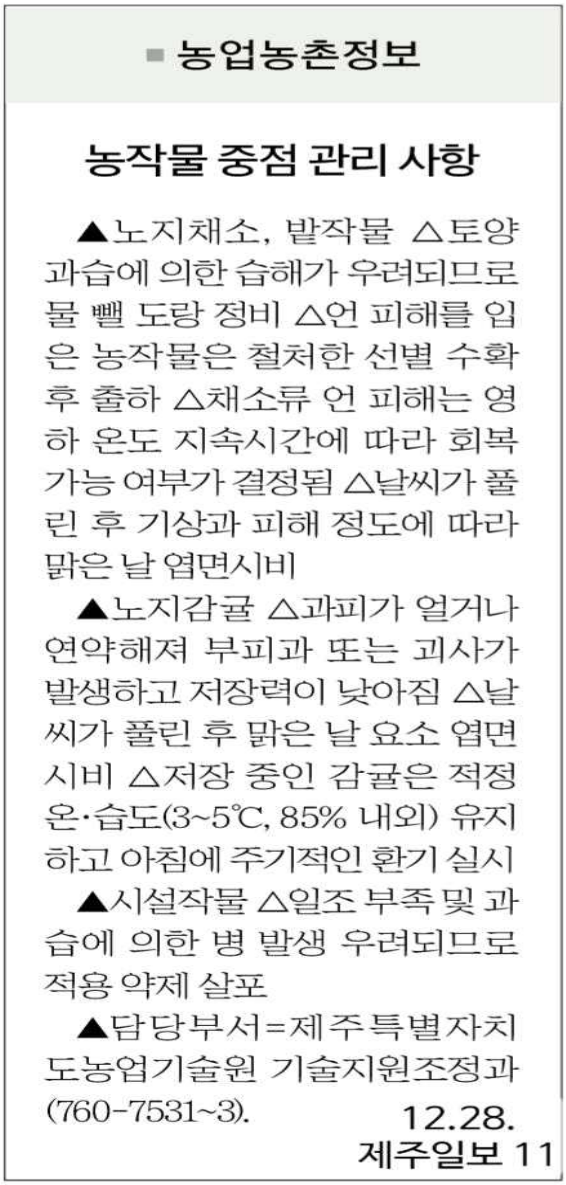
※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2024. 1. 3. ~ 1. 31.**
○ 1. 3.(수) 10:00 가시리사무소 : 노지감귤, 만감류
○ 1. 4.(목) 10:00 서부센터 교육관 : 마늘 기계화, 만감류
14:00 서부센터 교육관 : 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 1. 5.(금) 10:00 하례1리사무소 : 노지감귤
10:00 성읍2리사무소 : 더덕
10:00 귀덕1리사무소 : 양채류, 쪽파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81~3)

12.28.
제주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농작물 중점 관리 사항

▲노지채소, 밭작물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빼 도랑 정비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처한 선별 수확 후 출하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노지감귤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괴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5% 내외)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시설작물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28. 제주일보 11

(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겨울 당근 풍작에 가격은 하락세-3면

겨울 당근 풍작에 가격은 하락세

제주시, 분산 출하·가공용 판매 등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제주산 겨울 당근의 풍작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재배 예상 면적은 1320ha로, 전년(848ha) 대비 56%나 증가했다. 당근 생산량은 전년 2만9000t 대비 약 85% 증가한 5만4000t이 예상된다.

올해 여름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파종이 늦어진데다 재파종으로 내년 1월 하순부터 홍수 출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륙 지방 당근 생산지에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작황이 좋은 상황이다.

이달 초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보면 상품기준 20kg 한 상자에 1만912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2346원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폭락했다. 또한 평년 가격(3만577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당근가격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26일 현재 2만5822원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는 겨울 당근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자율 감축과 가공용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당근 수확 현장과 구좌농협 유통센터를 방문, "당근 가격 지지를 위해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소비 촉진과 함께 가공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12.28.
제주일보 3

(제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 월동무 수확 계절 한파 주의해야-6면

월동무 수확 계절 한파 주의해야

언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해야

'월동무'는 제주의 무를 지칭하는 말로 육지에 채소가 귀해지는 한겨울에 수확하며 겨울을 나는 무라는 의미다. 특히 성산 월동 무는 지하 암반수를 이용해 세척돼 출하되고 있다. 제주 월동무는 2000년 이후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전국 무 생산량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내 전체 물량의 75%가 성산읍 지역에서 생

최근 폭설이 내린 가운데 월동 무 주산지 성산읍 수산리 한 무밭에서는 23일 아침 일찍부터 눈을 치워가며 농민들이 분주하게 수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월동무가 꽁꽁 얼어붙어 수확 작업 도중 무에 흠집이 있거나 금이 간 무는 1차로 선별돼 밭에 그대로 폐기됐다.

월동무의 언 피해는 주로 땅 위에 노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피해를 볼 때 상품으로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도내 월동무 재배 농가들은 어떻게든 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파·폭설 이후 10~15일 정도 지나야 피해 확인이 가능하여 월동 무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대설, 한파, 강풍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후속 관리 방법을 농가에 신속히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기봉 도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2.28.
제민일보 6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유채나물 수확 한창-1면

유채나물 수확 한창 27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 한 밭에서 유채나물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 2023년 12월 28일)

○ 무밭에서 병충해 방제를…-1면

무밭에서 병충해 방제를… 27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무밭에서 농민들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라일보: 2023년 12월 28일)

○ 겨울에도 분주한 농촌-6면

겨울에도 분주한 농촌 27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한 농경지에서 어르신들이 취나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